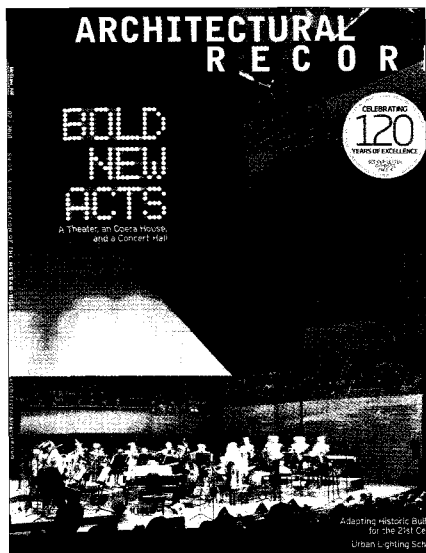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Bold New Acts' 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축의 이 황금시대에 지어진 세 개의 공연예술을 위한 아트센터, Foster+Partners의 Winspear Opera House, REX/OMA의 Wyly Theatre, Ateliers Jean Nouvel의 Copenhagen Concert Hall을 소개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Talking Heads' 라는 주제 하에 Frank Gehry와 Daniel Libeskind에 관한 두 가지 책, Conversations with Frank Gehry와 Counterpoint: Daniel Libeskind in Conversation with Paul Goldberger에 대해 재미있게 쓰고 있다.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Adaptive Reuse' 라는 주제로 Marcy Won Donn Loigan Architects의 Ford Assembly Building, Sand Studios의 Sand Studios and Residence, 그리고 Tadao Ando의 Punta della Dogana에 대해 다루고 있다.

■ Books

● Counterpoint : Daniel Libeskind in Conversation with Paul Goldberger. Monacelli Press. 2008

● Conversations with Frank Gehry: by Barbara Isenberg. Alfred A. Knopf. 2009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증거 자료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다. 요즘은 아무도 일기를 쓰지 않으며, 일지 또한 쓰지 않는다. 전자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별 중요성을 띄지 않은 채 오고간다.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져 버리고 만다. 과연 미래의 전기작가나 역사가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

하나의 해답은 녹음된 대화 즉, 구두로 된 역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된 두 책은 모두 현재 가장 유명한 건축사들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동양철학에서의 음과양을 보여주고 있다. 한 건축사는 모든 것이 좋다고 하고 다른 한 건축사는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

좋은 것은 Barbara Isenberg가 Frank Gehry를 아주 멋지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놀라운 건축사의 개성과 인간적인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Isenberg는 일일이 캐묻고 조사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고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대단한 건축사가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엉망진창일 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훌륭한 작가들이 그런 것처럼 Isenberg는 Gehry의 다소 무분별한 사무실이나 그녀가 인터뷰한 작업테이블에 대해 묘사하면서 우리가 마치 Gehry와 같이 있는 듯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 Gehry 사무실의 비공식적인 사진이나 Gehry의 성장과정에 관한 사진들도 실려있다. Gehry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아마도 독자는 본인이 마치 Gehry를 직접 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간단한 자료를 원한다면 "Gehry at Work"라는 제목으로 된 장을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정말 가치 있는 책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Libeskind의 책은 아무 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다. 편집자도, 디자인

너도 알 수가 없다. 또한 색인도 없다. 소위 말하는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된 것이 없다. 저자인 Paul Goldberger는 Libeskind를 직접 만나기는 한 것인지? 아니라면 두 사람이 이메일만 주고 받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사무실의 브로슈어를 미화한 것이다. 작가는 건축사 Libeskind의 작품을 시리즈별로 나열하였다. 사진은 모두 컬러로 되어 있고 간단한 설명이 실려있다. 무엇보다 의아한 것은 새로운 건물이 소개될 때는 Goldberger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Libeskind가 하는 방식으로 한 페이지 정도의 설명이 들어간다. 저자의 질문은 항상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Libeskind의 대답은 커다란 대문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은 자신감 없고 변변치 못한 질문에 대해 마치 크게 화를 내는 듯한 대답같다는 느낌을 준다.

어쨌든 두 건축사가 모두 훌륭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모두 개성이 있다. 이 두 책에서 보면 그 차이가 현격히 보인다. Gehry는 주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Libeskind는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Libeskind는 건축주나 개발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Gehry는 Marshal Rose, Bruce Ratner, 그리고 Barry Diller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쨌든 이 두 책은 모두 가치가 있다. 그러나 Gehry의 책은 사서 보도록 하고 Libeskind의 책은 빌려서 보도록!

■ Project

Winspear Opera House, Texas / Foster+Partners

Foster + Partners는 Margot와 Bill의 Winspear 오페라 하우스를 창조하기 위해 전통적인 음악당을 재현대의 건축언어를 사용하여 재해석한다.

공연장 바깥으로 설치된 측면은 스틸 캐노피가 있는 Winspear 오페라 하우스는 AT&T 아트센터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 들인다. Foster+Partners가 디자인 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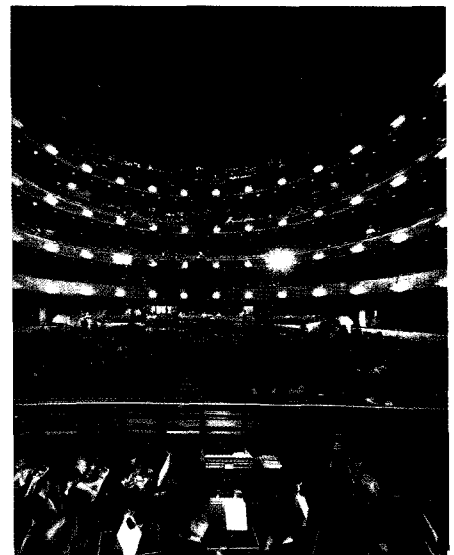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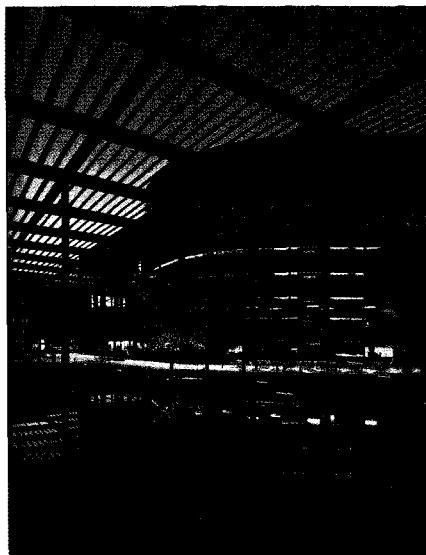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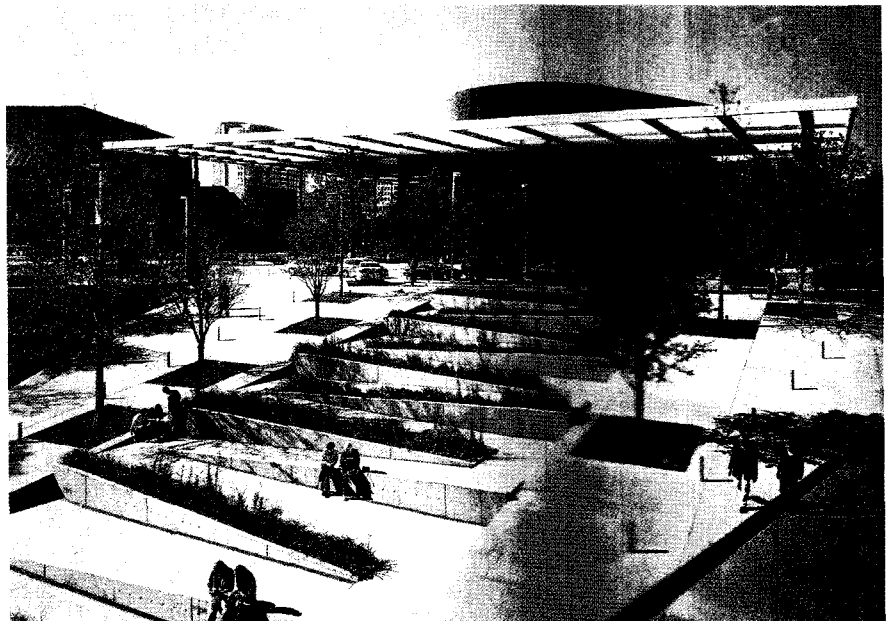
오페라 하우스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자장치의 힘을 빌리지 않은 음향효과가 가장 뛰어난 음악당을 만들고자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던 캐나다 출신 사업가 Bill Winspear의 참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확실히 두 번째 목적은 이루어져왔고, 오페라 하우스의 디자인은 첫 번째의 목적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에 대한 태도는 일방향 도로(Flora)를 따라 건물들을 배열하려던 처음 계획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날 상영관에 가지 않는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 오페라 하우스의 넉넉한 공간은 건물 자체로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를 위해서

건축가들은 광장과 둘러싸인 도로와 건물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축들을 이용하여 건축 계획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결과적으로 이 오페라 하우스는 현재 I.M. Pei가 1989년에 지은 Meyerson 교향음악당과 4만 5,000천 평방미터 정도의 공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로로부터 약 30도 정도 방향이 돌려져 있다.

수평으로 가로지른 Winspear의 힘찬 캐노피는 Flora 거기 맞은 편에 있는 REX/OMA 가 지은 Wylly 극장의 수직성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긴 형태의 캐노피는 건물의 오디토리엄, 무대, 냉각탑이 있는 붉은 색 유리된 드럼형태의 건물 매스를 둘러싸고 있다. 멋진 알루미늄 루버로 된 스틸 구조는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다양한 각도로 설치되

Winspear Opera House



어 있으며 이는 광장과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18미터 높이의 유리로 된 벽에 그림자를 드리워 태양을 막아주고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로비의 동쪽에 있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유리패널들이 접히면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식사와 담소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편안한 외부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캐노피는 내부 공간의 냉난방 부하를 감소시킨다. 건축사들은 바닥으로부터 공기를 흡전체로 펌프질 해주는 치환형 환기 시스템을 비롯하여 수많은 에너지절감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각형 형태의 잔디나 야생화가 식재된 파고라와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그 아래 그늘이 드리워진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었다. 또한, 검정색 화강석으로 된 물같이 반짝거리는 필름으로 덮여져 있는 수영장의 둘레에 있는 보도에는 이 건물에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캐노피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리드는 건물의 모든 외부공간까지 닿아 있어 넓은 공용공간, 그 규모가 엄격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

전통적인 오페라 하우스의 색채와는 반대로 Foster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붉은 색을 사용하여 이 건물을 그 구역에서 가장 걸출한 요소로 만들었다. 두 겹의 유리 사이에 밝은 빨간색의 PVB 층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디자인은 앞과 뒤쪽 양쪽으로부터 컬러풀한 외피를 빛나게 하였다. 이는 낮이나 밤이나 붉은 빛으로 빛나게 되어 낮이나 밤이나 눈에 확 띄는 교통 표지판으로 만들었다.

내부공간은 따스한 분위기이다. 극장 안의 형태는 전통적인 말굽형태로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와 넓은 계단은 카페와 긴 바와 함께 극장의 곡선을 따라서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다.

반세기 동안 공연문화를 위한 공간들은 도시의 재개발 및 확장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오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공연까지 소화해 낼 수 있는 공연 예술의 명소로서의 성공과 더불어 이 Winspear 오페라 하우스는 이전 시대에 공연문화는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생각을 극복했고 건축 계획 상으로는 공연장을 둘러싼 도시와의 연결 또한 훌륭히 해 낸 것으로 생각된다.

Wyly Theatre, Texas / REX/OMA

REX/OMA의 Wyly 극장의 기계처럼 보이는 타워는 외부세계와의 연결과 함께 퍼포먼스의 유연성을 향상되게 한다.

물결치는 듯한 알루미늄으로 된 파사드와 바사바사 소리가 나는 사각형의 형태와 더불어 Dee&Charles Wyly 극장은 Dallas의 주로 벽돌과 석조로 된 건물이 많은 예술 중심 지구에 매력적으로 등장했다.

전통적인 극장같은 형태를 따르기 보다는 무대가 중앙에 있고 무대를 위한 부수적인 공간을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지하에 로비가, 무대 공간은 길가 쪽에, 리허설 스튜디오, 사무실, 교실은 모두 위층에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와는 변화를 추구하는 9층의 건물을 만들었다. 이 '수직의 도시'는 Texas의 대초원을 만났다.

이 Dallas 예술 지구의 중심에 있는 AT&T 공연예술극장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길 건너 편에는 I.M. Pei의 구불구불한 형태를 가진 Meyerson 교향음악당과 피와같은 붉은 색의 드럼형태를 가진 Foster+Partners의 Winspear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주변의 이런 화려한 건물들을 의식하여 Joshua Prince-Ramus와 Rem Koolhaas는 사무실 건물과 같은 형태를 선택했다.

“수직성이 우리의 주체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복합문화공간과 도시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이다.”라고 Koolhaas는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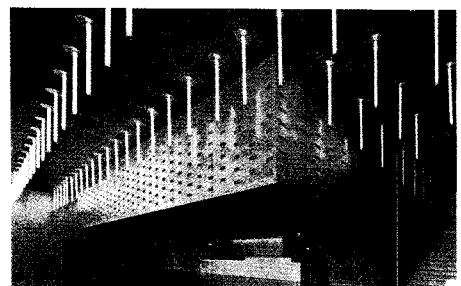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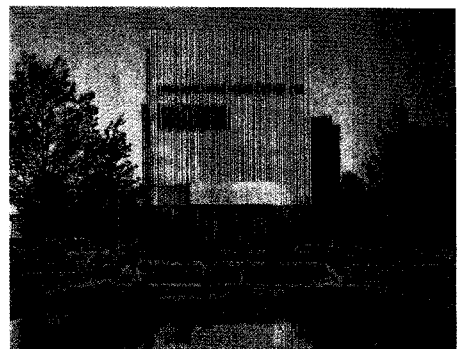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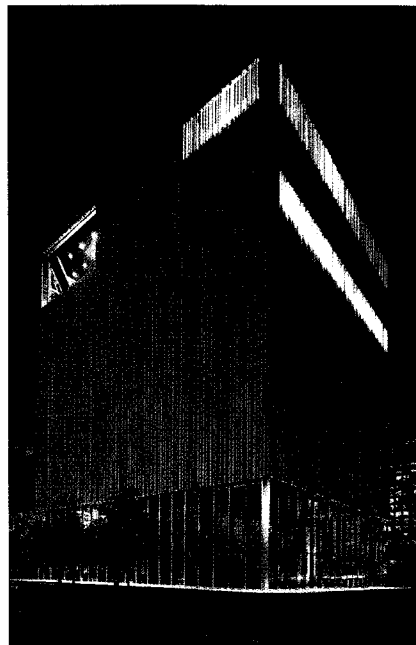
Wyly의 튜브형태의 알루미늄 외피는 극장의 주름잡힌 커튼을 생각나게 한다. 건축사는 공연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디자인함으로써 현재의 극장을 다시 발명해 냈다.

원치, 리프트, 트랙, 도르래, 그리고 캐트 위크와 같은 정교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건물의 구조는 날짜보다는 시간싸움인 공연예술에서 노동력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게 다시 계획될 수 있었다. 이는 스포츠 콤플렉스나 컨벤션 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공연을 위한 극장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었다.

통로는 막 사이에 재 배열 될 수 있으며 청중은 공연 시작 때는 바닥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는 무대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 극장에 대해 들어오는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는 엉덩이가 아픈 의자와 발코니 좌석에서의 좋지않은 시선에 대한 것이고 잦은 불평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보드 게임인 'Chutes and Ladders' 같이 빠뜨려진 건물의 입구이다. 길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고 방문객들은 경사진 콘크리트 램프를 걸어 내려가야 로비에 갈 수 있으며 다시 좁은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좌석에 가서 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선은 건축사가 완전히 공연장소가 유연성을 가지기를 위한 것으로부

Wyly Theatre



터 기인하며 이 때문에 로비가 지하층에 계획된 것이다.

아트 디렉터인 Kevin Moriarty는 '로비에서의 5분간의 불편함은 흥미진진한 무대의 두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건축사들은 생각했다' 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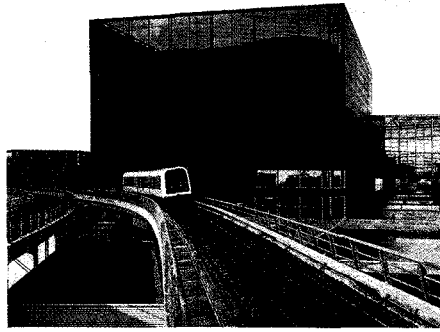
또한 램프는 가파르고 딱딱하여 그다지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도 역시 좀 위험하다. 그러나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문객들은 섬세한 하이테크의 공간을 만나게 된다. 소파나 벨벳으로 된 커튼, 그리고 파스하고 차분한 색채는 볼 수 없다. 단지 무언의 콘크리트 벽과 바닥이 있을 뿐이다. 반짝이는 스텐레스 스틸로 된 패널이 위에 걸려 있으며 형광등이 그대로 노출된 채 천장에 매달려 있어 마치 미국의 제트기 Saber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상당히 거친 내부디자인으로 어떤 실내장식가가 멋지게 꾸며낸 것 보다 심각한 미학의 일관성을 가지고 디자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두 번의 공연이 있었으며 특히, 오프닝을 위한 갈라쇼는 어떻게 Wylly가 궁극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에는 너무나 일찍 열렸었다. Kevin Moriarty는 이 곳에서 어떤 공연이 가능하고 불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곳이 디렉터를 위한 극장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세롭고 놀라운 실험실로 Dallas의 청중들에게 새로운 공연의 밤에 대해 재정의 해 줄 것이다. 두 건축사의 다른 작품들처럼 예쁘거나 감동을 주기 보다는 도발적이다. 21세기 예술중심지역에서 이는 좋은 역할을 해 낼 것이다.

Copenhagen Concert Hall, Copenhagen / Ateliers Jean Nouvel

Ateliers Jean Nouvel은 Copenhagen Concert Hall을 위해 천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컨테이너를 고안해 낸다.

지난 1월에 오픈한 Copenhagen Concert Hall에 대한 반응은 그것을 본 그 시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Ateliers Jean Nouvel이 디자인한 이 Concert Hall



은 우리가 방문한 날의 시간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컨테이너 박스로, 오디토리엄으로,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Danish Radio와 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에 속해 있는 이 건물은 역사적인 도시 Copenhagen 외곽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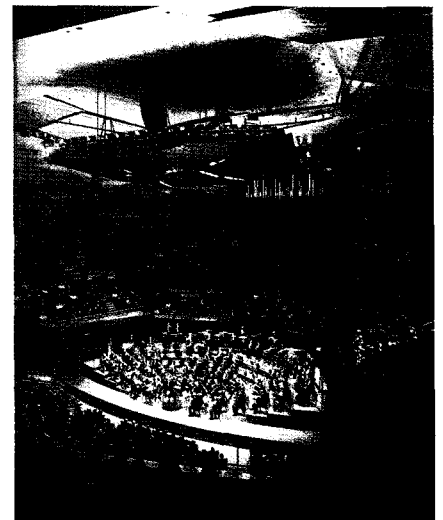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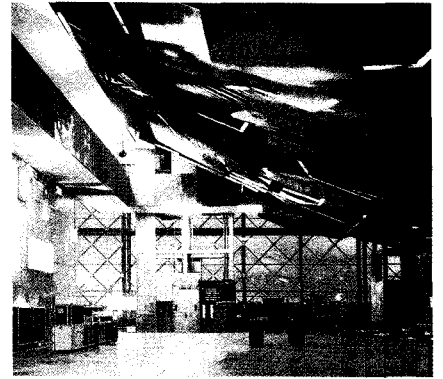
건물의 외부에서 보면 밝은 빛 때문에 비계들이 파란 빛을 내는 천으로 감겨져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듯이 보이기도 한다. 해가 질 무렵에는 천상에서 볼 수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로 바뀌게 된다. 다양한 레벨을 가진 건물의 입구는 낮 혹은 밤에 따라 그 특성이 변한다.

밝은 낮에 메인 로비는 큰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과 악기들을 운반했던 운송용 나무상자와 비슷하게 디자인된 균인 스타일의 가구와 어두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연출되는 분위기는 1940년대 전쟁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공황과 같은 느낌을 준다. 밤에는 거친듯 보이는 화려함을 지닌 로비가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나이트클럽처럼 바뀌기도 한다.

낮 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 거대한 Concert Hall의 다양한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할 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 파란 색의 새장같이 보일지라도 일단 오디토리엄에 들어서게 되면 넓고 파스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멋진 내부를 만날 수 있다. 이 Concert Hall의 파티터를 만들어 냄에 있어 Jean Nouvel은 내부와 컨테이너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라고 하고 이를 위해 조명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조명 디자이너인 Yann Kersalé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 플로어 램프는 젓빛 유리로 덮여 경사진 면, 벽의 질감을 돌보이



Copenhagen Concert Hall

게 하는 반면 Hall의 상부에 선형으로 설치된 조명은 Hall의 운곽이 나타나게 해 준다.

Concert Hall 내부는 물결치는 듯한 곡선이 층을 이루며 벽을 만들고 있으며 이 벽은 Gypsum 보드로 되어 있다. 색채는 해질 무렵에 볼 수 있는 노을 빛으로 조명에 의해 부드럽게 빛난다.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도 음향에 대한 평 또한 긍정적이다. 개관한 지 6개월 후에 Los Angeles Times의 음악 비평가 Mark Swed에 의해 좋은 평을 받았다. 사실 건물이 그 시각적인 면에 기초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어쩌면 정신분열에 걸릴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건물이 그렇다. 낮에 비계에 천을 씌운 파란 색 새장같다거나 밤에는 재미있는 집 조명 조명 같다는 등의 평이 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초과된 예산으로 엄청난 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 넓고 멋진 메인 홀과 작은 규모의 매력적인 음악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과연 그 정도의 예산(한화로 3천 6백 75억 정도)이 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게 하는 건물이다. ■